

광주·전남 지자체 전기설비 7616개 ‘안전 부적합’

71.5%는 방치 ... 제주 80.3% 이어 두번째 많아

대부분 주민생활 안전 가로등·신호등·경관조명

광주·전남지역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과 경관조명 등 공공전기설비 7616개가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71.5%인 4262개는 지난 8월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강원 평창)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전기관리 설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절반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안전 부적합 판정 후 방치되고 있는 전기설비는 주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경관조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전기설비 5만843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방치되고 있는 전기설비가 많다는 점이다. 지역별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은 미개수 비율은 제주가 80.3%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은 71.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시설 10개 중 7개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기초 자치 단체별로는 충남 청양군, 광주 광산구, 전남 강진군의 경우 정기점검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전기

설비가 98%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경기도에서 부적합 전기설비(가로등) 방치로 인해 19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각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개수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농업박물관 관람객 400만명 돌파

개관 24년만에 ... 전통 농경문화 교육장 자리매김

전남도농업박물관은 개관 24년만에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업박물관은 농도의 특성을 살리고 점차 사라져가는 농경문화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해 우리의 옛 문화를 후손들에게 일깨우고 미래를 예측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3년 농업전문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개관 이후 지난 9월까지까지 누적 관람객이 410만3641명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간 최대 관람객은 2016년 26만여명이었고, 연평균 관람

객은 16만여명이었다.

이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데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관람료를 무료화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우성 전남농업박물관장은 “전통 농경·민속문화와 친환경농업 등을 한 곳에서 동시에 배우고 체험하는 ‘국내 최고의 농경문화 체험관광 명소’로 육성해 관람객 500만명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주시 13일 토론회

광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LH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 3층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향’, ‘도시재생공동체 센터의 역할’, ‘주목도시 기금 지원제도 안내’, ‘LH 도시재생 사업 모델’, ‘국내외 우수도시재생 사례’ 등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발표와 도시재생 마스터인 조영준 조선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자유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자치구 재생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TF팀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12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종합설명회 개최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시장, 독 프라운호퍼IPA 방문

트팩티브 ‘로봇 자동화’ 연구개발 전략에 관한 의견을 나눈 뒤 연구소 관계자의 안내로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프라운호퍼IP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연구소이자 유럽연합 최대 자동화 연구소로 450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및 12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일 독일로 출국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10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프라운호퍼IPA를 방문해 마틴 헤겔 자동화부문 총괄책임자를 만나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동화’ 연구개발 전략에 관한 의견을 나눈 뒤 연구소 관계자의 안내로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프라운호퍼IP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연구소이자 유럽연합 최대 자동화 연구소로 450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및 12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2020년 양식수산물 2조원 시대 연다

올 상반기 135만t·생산액 1조3439억... 해삼·새우·가리비 등 고소득 집중 육성

전남도가 2020년 양식수산물 생산액 2조원 달성을 목표로 고소득 품종 양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해면양식 생산량은 지난 6월 말 기준 135만t, 생산액은 1조343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량은 24만t(21.6%), 생산액은 2643억원(24.4%) 늘었다.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해보다 약 20% 늘

어난 1조5000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지난 2012년 8592억 원이었던 생산량에 비하면 비약적 성장세다.

전남도는 2020년 생산액 2조원을 넘어 서기 위해 양식어업 생산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다시마 등 신규 해조류 어장 1만 6200ha를 개발중이다.

중국 수출 유망 품목인 해삼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새우, 수요 확대 추세인 가리비와 굴, 꼬막 등 경쟁력이 높은 유망 품종도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트랙 수조 해삼 양식장 2곳, 새우 2모작 양식을 위한 수조식 중간 육성장 4곳을 조성하고 가리비와 굴 양식 확대를 위한 신규 어장 14곳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자원 고갈로 재생산력을 상실한 꼬막 등 패류 자원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10대 중점과제에 3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삼, 새우, 가리비, 개게굴, 꼬막 품종 집중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양식수산물 2조 원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0년 양식생산 2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와 양식어업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성 높은 소득품종 양식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일자리지원 국비 126억 확보 ... 2년 연속 최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국비 126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사업비에는 전남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일반 공모 사업비,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비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일반 공모사업의 경우 드론, 콘텐츠 등 도와 시·군 연계 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석유화학 고용위기 대책, 전략산업인 에너지 신산업·농수산 바이오 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일자리 대상 수상, 2016~2017년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비 최다 확보, 지난해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 평가 전국 1위 등 성과를 거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713-종-83334호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차다리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허리디스크! 내시경으로 절개없이 해결 가능?

비수술적으로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비절개로 어깨나 무릎처럼 양측 삽입구를 통한 일반 내시경 수술로 디스크 치료가 가능합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곳!

첨단우리병원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관절 치료!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